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그날 아침 여덟 시, 입원 환자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이 보는 앞에서, 경북 성주가 고향인 스텝일곱 살의 환자 이춘상은 수오 원장에게 “너는 환자들에게 무리한 짓을 했으니 내 칼을 받아라”라고 외쳤다. 그는 거사 후에 체포되어 소록도의 감금실에 감금되었고, 얼마 후에 공회당에 차려진 임시 법정에서 자신의 거사가 일시 귀성 허가의 불공평, 일상 작업의 가혹성, 감금실 운영의 자의성, 강제 헌금, 일본인 간호장의 횡포와 비인간적 대우, 식량 배급에서의 부정 등을 폭로하여 원생들의 처우 개선과 병원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센 인권의 날 제정을 제안하며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형이 언도되었다. 그는 대구 북삼법원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했지만, 결국 이듬해 2월1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춘상에게 죽임을 당한 수오 원장은 책임관으로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였다. 이춘상 사건은 일제 35년 동안 조선 내에서 일어난 조선인의 저항 중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인권 운동이자 민족 운동이었다.

사실 이춘상 사건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와 소록도갱생원의 강권적인 통제 정책이 낳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저항은 이춘상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1년 5월 20일 소록도갱생원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원장 동상 건립을 위한 노동과 헌금을 제안한 공로로 박순주라는 원로 환자가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다른 환자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열흘 후에 이길용이라는 환자가 박순주를 찾아가 그의 잘못을 꾸짖고, 그를 살해했다. 이

길용은 자신의 거사가 6000여환우의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록도갱생원의 강권적 통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문제의 동상은 당시 가난한 환자들이 갱생원에서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일을 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강제로 헌납 받아 만든 것이었다. 이 동상은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몰자 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무기 제조를 위해 헐릴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운명을 지닌 것이었다.

이춘상 사건 직후에 일본 한센병 정책의 핵심 인물이자 국립 애생원 원장이었던 미즈다 겐스케는 큰 충격을 받고, 그를 이토오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에 비유했다. 미즈다 원장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새롭게 점령한 동남아시아 각지에 나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본식 나 요양소를 세울 것을 계획했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소록도갱생원의 환자로 충당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수오 원장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국 한센 100년의 역사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총독 부 당국이나 병원 중심이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 회복과 증진의 역사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인권 회복 운동은 이미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 수용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 냈고, 해방 후에 이루어진 강제 단종과 불임 조치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배상도 이끌어 냈다. 각종 사회적 차별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한센 특별법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착 과거에 이루어진 인권을 위한 환자들의 투쟁은 아직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든 소록도병원 개원 기념일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춘상 선생을 기억하는 공식적 기념일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의 어두운 낙인과 오명을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춘상 선생을 기억하는 한센 인권의 날을 제정하는 것 아닐까.

社說

광주산 완성차 2021년 생산 차질 없도록

‘광주형 일자리’의 첫 적용 모델인 광주시·현대차그룹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 이 다음 달 설립될 전망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법령 근거 마련이 마무리되고 투자자 모집도 상당 부분 진척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그제 광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 심사 면제 결정을 최종 통보해 7월 중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한 영리 법인에 자본금 483억 원을 직접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출원 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우회 투자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로써 광주시가 자동차 공장의 1대 주주가 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시는 법인 설립에 앞서 이달 중 현대차와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작 법인 투자 협약식’을 연다. 이어 발기인 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합작 법인이 설립되면 아시아자동차 이후 광주에 본사를 둔 두 번째 자동차 회사가 탄생하고, 국내 전체로도 23년 만에 완성차 제조 법인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합작 법인은 올 하반기 완성차 공장 건립에 들어가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현대차가 개발할 소형 SUV를 연간 10만 대가량 생산하게 된다.

국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광주 완성차 공장은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의 지속가능성이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일감 확보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물론 해외 완성차 법인 등 제 3자 위탁 물량을 꾸준히 수주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 포스코에 고작 과징금이라니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내려진 제재 수위가 ‘과징금 부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최근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보받았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실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 당국은 광양제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고로(용광로) 정비 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을 통지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여기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 정지 처분에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 방지 안전시설’인 블리더가 문제가 됐다. 블리더

는 고로 내부의 압력이 급등해 폭발 위험이 생기면 ‘자동’으로 열린다. 포스코 측은 단순 청소를 위해 비상 개방 장치인 이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배이며 전남도가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이다. 포스코 측은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역시 폭발 위험을 우려한 ‘이상(異常) 공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교육자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낸 것과 달리 포스코 측은 여태껏 공식 사과도 없었으며 해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도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재 수위를 낮춘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포스코의 성실한 환경투자계획서 제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나다운 삶



안해림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3학년

현재 내 나이는 22살이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리고, 많은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또래 청년들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점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대학에 처음 입학한 1학년 때 학교 홍보 대사를 비롯해 학생군사교육단(ROTC), 대외활동 등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만의 ‘버킷 리스트’(Bucket List)를 만들었다.

처음엔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내가 저 많은 걸 다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잠시,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다. 현

재 그 고풍을 한 가지씩 이뤄나가며, 하루하루를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버킷리스트 외에도 방학 때마다 여행 떠나기, 아르바이트 경험 쌓기, 자격증 취득하기 등 새로운 도전 거리를 만들며 나만의 버킷 리스트를 채워나가고 있다.

만약 1학년 때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주저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글을 읽는 또래 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두 번째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학 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이나마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당시 나는 내가 사용하는 돈의 지출 내역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매일 쓰는 돈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게 되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내가 지출이 많은 분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과 과소비를 줄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은 적금 통장을 만들어 지금까지 꾸준히 적금을 넣고 있다. 아주 사소한 변화로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다. 저축하는 습관은 추후 미래에 취업을 한 뒤, 월급을 받게 될 때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남게 돼 있다. 반면 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연연하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 정말 힘겨워하는 점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걱정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보다 남들의 시선을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남들의 시선과 사회가 그어놓은 기준 등 삶의 파도에 휩쓸려 살게 되면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의 빛을 찾으면 좋겠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된다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주고 싶다.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부적절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당히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 약간의 거리도 둘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귀한 존재가 나 자신이다.

내가 쓴 오늘의 글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춘들의 생활과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고

니체, 노래하고 춤추다



김포천
전 광주 MBC 사장

투린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있었던 일화. 하숙집에서 나오자, 바로 한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가는데, 마부가 말에게 심하게 매질을 하고 있었다. 울면서 말에게 달려가, 그 말의 목을 끌어안고, 그만 쓰러졌다. 니체였다.

니체는, 모든 예술 활동의 발전은,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과의 영원한 대립 투쟁의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예술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자극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여, 니체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니체, 노래하고 춤추다’ 한국니체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가, 6월 초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열렸다. 나는 첫날 참석했다. 전시장에는 니체의 다양한 면을 그린 광주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었다. 작품의 주제는 모두 새와 춤 그리고 니체 이미지로 집약되어 있었다.

“니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 자신의 노래가 있고, 자신의 춤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노래가, 어떤 춤이 살고 있습니까?” 이주향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연주된 김현욱 교수의 창작곡 ‘위버멘쉬’가, 장내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서 본 짜라투스트라라의 꿈, 무음으로 말하는, 그 속삭임을 들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게 했다.

‘운명애, 거기에 이르는 생명의 춤’ 기조 강연에 이어, ‘쇼펜하우어의 예술 철학과 회화’, ‘니체의 쾌와 불쾌의 변증법’, ‘니체, 허무주의와 춤’, ‘아울로스를 통한 니체의 음악 정신 연구’ 그리고 퍼포먼스의 순서였다.

생각보다 넓은 화선지 위에 먹돌과 큰 붓으로, 일필휘지로 내려친 그림. 무엇을 저렇게 집중해서 그리나 주의 깊게 지켜보았더니, 그림은 바로 니체의 초상화였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시선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려낸 주홍 작가의 초상화 솜씨가 대단했다.

종합 토론이 있었고, 이어서 클로징 공연 ‘I love Nietzsche’는, 가천대학교 최보결 교수의 춤이었다. 늘씬한 기, 가름한 얼굴,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눈빛이 작은 무대에 작렬했다.

음악이 흐르자 춤을 추기 시작한다.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올리고, 두 다리가 움직이더니, 걸어가는 듯 뛰어나는 듯, 평생 자신에게 맞는 장소를 찾아 방랑했던, 노마디즘의 니체를 그리는 것인가. 무용수는 맨발이다. 끊임없이 자연과 접촉하며,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유목민 같은 여인의 모습이다.

니체의 정신 발달의 세 단계, 니체의 정신 궤적을 표현하는 것인가. 먼저 낙타의 정신. 고개를 뒤로 찌더니, 얼굴을 가슴에 묻고, 실컷이 쓰린 듯, 어깨와 등을 뒤척이며, 고통스런 표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던가. 두 팔을 크게 벌려 세상천지를 쓸어안을 듯이 달려가더니, 온몸을 기운차게 휘고 돈다. 그리고 최후에 아이의 정신에 이르러야 한다. 싱그러운 6월의 첫날이다. 푸른 새벽이요 초록의 풀이다. 그리고 만족스런 표정이다. 팔다리의 동작이 경쾌해진다. 자력으로 달려가는 바퀴다.

이윽고 교수 춤꾼은, 무대 위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 한 곳에 눈길을 준다. 그 쪽으로 목이 끌린다. 춤을 추며 당도한 거기에는, 조금 전 퍼포먼스로 탄생한 니체 초상화가 있었다. 그리운 얼굴을 대하듯 다가가 입을 맞춘다. 한참 동안의

황홀한 입맞춤,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온다.

다시 돌아 선 춤꾼, 무대를 한 바퀴 돌더니, 무대 아래로 내려온다. 춤은 계속 된다. 가벼운 미소가 떠오른다. 사뿐사뿐 가볍게 돌더니, 발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천천히 움직인다.

한 사람의 철학 교수와 눈을 맞춘다. 눈빛으로 말한다. 나오라고, 춤추자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눈빛으로 이끌어낸다. 발로만 추는 춤이다. 차츰 많은 사람이 이끌어낸다. 수십명의 사람들이 원을 그린다. 원을 그리며 춤 공간은 넓혀진다. 드디어 참석자 전원이 어울려 춤을 추는 장관이 펼쳐진다.

우리는 여기서, 니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본다. 노래하고 춤추는 니체를 보게 된다. 철학이 노래와 춤을 타고 흐르는 학술 모임, 끝없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다. 우리를 일깨우는 신선한 감흥이 있다. 니체는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려면, 자신을 가두고 있는 편견을 망치로 부셔야 한다고. 중요한 것은, 몸에 밴 익숙한 틀을 깨고, 벽을 헐고 나아가, 노래해야 할 것들과 창조적으로 조우하는 것이다.

신선한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이끌어온 성진기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無等鼓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도전한다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들의 출마 러시는 규모 면에서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석 비서관에서 말단 행정관까지 직계는 30여 명, 말개는 40여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도전 규모에 있어 최대 기록될 것 같다.

이같은 ‘출마 러시’의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대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 및 당원들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청와대 근무 경력에 당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민심의 눈길은 굵지만은 않다. 당장 촛불 정부의 의미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정치적 정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늘어나는 빈자리는 청와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소는 누가 키우냐’며 비아냥거린다.

청와대가 민주당의 총선 캠프이자 총선 출마 희망자들의 경력 세탁소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민생 경제는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점차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흐름이다. 정쟁 구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사회 전반의 갈등은 확산되면서 여권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

망과 함께 차기 정권 창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 진영에 정권을 넘겨준 후, 당시 친노(친 노무현) 세력은 스스로를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이라 자처했다. 올 여름이 지나면 내년 총선은 섬근 다가온다. 여권 지도부가 폐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절박함으로 무장할 시가다. ‘각성과 헌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요구되는 단어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촛불들의 여망이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기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